



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보	도 침	; 고	자 료
배 포 일	2018.10.15.(월) / (총 4 매)			
위기대응총괄과	과 장	이상원	전 화	043-719-9050
	담 당 자	문상준		043-719-9061

'18년 메르스 국내유입, 10월 16일 0시 상황 종료

- ◇ '18년 9월 8일 양성판정 받은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, WHO 기준에 따라 10월 16일(화) 0시 종료
- ◇ 중동국가 방문 국민은 메르스 예방수칙 준수,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성실 작성 등 검역에 적극 협조 당부
- 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세계보건기구(WHO) 기준*에 따라 9월 8일 양성판정 받은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10월 16일(화) 0시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.
 - * 확진환자가 음성판정을 받은 날(9.17일)부터 최대 잠복기(14일)의 두배가 경과된 시기(28일)까지 추가 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상황 종료
 -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21일 이번 확진환자로 인한 메르스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밝히고, 9월 22일 0시를 기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'주의'에서 '관심' 단계로 낮춘 바 있다.
- □ 다만, 메르스의 해외 유입 가능성은 계속 있으므로, 정부는 이번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지적된 부분은 평가·점검하여 메르스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







- □ 또한, 향후 메르스 국내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<u>국민들께</u>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,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,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,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,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,
 -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여행 후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나 1339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.
 - <u>의료기관 종사자</u>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,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하여,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,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.









붙임

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(한국어)

용용에 메르스 바로 알기

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, MERS

메르스란?

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(MERS-CoV)에 의한 급성호흡기질환을 말합니다.

● 증상













기침

호흡곤란 인후통

구토.설사

잠복기

2~14일 정도로 추정

감염경로



- ① 낙타와 접촉
- ② 생 낙타유 섭취
- ③ 메르스 환자와 직접 또는 긴밀한 접촉

감염 증상 신고

☑ 메르스 의심환자란?

- 1. 발열과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으면서
 - -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*을 방문한 자
 - -메르스 의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
- 2.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고, 메르스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

*아라비안반도 및 그 인근 국가(지역):

바레인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, 요르단, 쿠웨이트, 레바논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시리아, 아랍에미리트, 예멘











중동 국가 여행자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

시기

예방법



 65세 이상, 어린이, 임산부,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, 당뇨, 고혈압,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여행 자제



 여행 중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, 낙타접촉, 낙타 생고기, 생낙타유(Camel milk) 섭취를 피하기



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 (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)



•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



-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
-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 소독



- 기침,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
-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



•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기



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
있을 경우, 의료기관 가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기술을 로전화하세요.





